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훈육방법에 대한 변인 연구\*

## The Determinants of Disciplinary Practice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문혁준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Moon, Hyukju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family, and the extra context relate to disciplinary practices and to examine the cumulative effects of positive variables on effective disciplinary practice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Disciplinary practices of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were correlated with number of child, husband support,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and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program. Parenting stress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disciplinary practices for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exposed to several positive variables were more likely to exhibit effective disciplinary practices than mothers who were not.

**주제어(Key Words):** 아동(child), 취업모(employed mother), 비취업모(unemployed mother), 훈육방법(disciplinary practices)

Corresponding Author: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n 43-1 Yonkok2-dong, Buchon 420-743, Korea Tel: 82-32-340-3486 Fax: 82-32-340-3485 E-mail: mhyukj@unitel.co.kr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I. 서론

아동은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해 간다. 특히 자녀의 사회화 및 양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는 취약한 아동에게 일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그 예로써,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 표현을 잘 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해주고 존중해 주는 경우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경향이 있으며(박주희·이은혜, 2001), 어머니가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낼 때, 자녀는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고(도현심·최미경, 1998), 온정적이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Kochanska & Aksan, 1995). 반면 부모의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민정·도현심, 2001),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무관심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를 저하시킬(강기숙·이경남, 2001)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김혜련, 1994)이나 반사회적 행동(연진영, 1992)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동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양육하는가 하는 것이 자녀의 성격형성과 행동특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은 주로 아동의 성별과 연령,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자녀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도 등이 있다.

아동에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애정적이고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며, 학령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남, 2001).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감독과 통제를 가하며(오미경, 1998),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덜 애정적이며 더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연신·현은강, 2002).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첫째보다 둘째 이하의 자녀에게 더 과보호적이며(문혁준, 2001a), 첫째 아동 특히 여아가 첫째인 경우 부모는 덜 인내하며, 덜 지원적이며, 더 통제적이고 요구하며, 간섭하며 비밀관된 양육행동을 보이는(Ward, Vaughn, & Robb, 1988) 등 연구마다 결과에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표적 아동특성변인인 기질은 부모-자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며 긍정적인 기분을 많이 보이는 자녀에게 어머니는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최영희, 1992),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의 부모에 비해 자녀훈육시 과잉반응, 장황한 언어표현 등 비효율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혁준, 2000c).

부모변인에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이나 구타 등이 잦았고(이재연·한지숙, 2003), 어머니의 연령이 만37세 이하인 그룹이 그 이상의 연령그룹에 비해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며(최정미·우희정, 2002),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존중감, 온정성, 관심이 높고 자녀와의 대화시간과 저녁식사 빈도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옥·현은강·최보가·이귀옥·이숙·조성연, 2002).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온정적이며 엄격하고 관심이 많으며(이옥 외, 2002),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더 합리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으로 양육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일관성 있는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제를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2001a).

가정변인에서는 형제수가 많을수록 규칙을 강조하고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은 더 짧은 경향이 있으며(이옥 외, 2002), 자녀를 하나만 가진 어머니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에 대해 더

애정적·수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진남, 1987).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있어 더 온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양장애, 1999), 가정소득이 높은 가정의 부모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혁준, 1998).

Belsky(1984)는 부모행동의 과정 모델에서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부모 개인의 성격과 아동의 기질 뿐 아니라 부부 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맥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Abidin(1992)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을 자주 통제하고 강압적이며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양육스트레스가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송주미, 1992).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 지원은 양육행동 및 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즉 사회적 지지가 적게 되면 일상생활과 부모 역할수행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자녀양육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할 경우, 아동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박경자·권연희, 2002) 뿐만 아니라 방임적이며, 과잉반응적이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등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2000b).

한편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만족도 또한 부모로서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생활환경의 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훈육에 있어 일관적이며, 간단명료한 언어표현 등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문혁준, 2000a).

더 나아가 유아교육기관은 취업모 자녀의 대리양

육 뿐만 아니라 비취업모 가정의 아동에게 있어서도 가정외에 또래와의 사회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주요한 사회화의 장이자 보호 및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취업모의 증가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적 맥락에서 탁아기관의 질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성연·임미리, 2002).

2000년 9월 통계자료(보건복지부, 2001)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아동 중 약 45%가 취업모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는 등 어머니의 취업은 더 이상 소수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가족의 생활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어머니의 외면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태도와 관계의 변화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규련, 1993).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아동의 발달적 맥락에서 어머니의 취업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부모들이 집에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감정표현도 덜 하였으며(Repetti, 1989), 직장에서의 일에 빠져 있으면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조언해 주지 못하고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알아채지 못하기 쉽다(Bolger, DeLongis, Kessler, & Wethington, 1989)는 연구결과들이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 준다. 반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부모는 자녀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에게 더 다정하며, 규칙준수를 더 격려하고, 자녀의 생활에 관심이 많으며, 자녀에게 보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이옥 외, 2002) 등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육행동 및 훈육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특성, 자녀의 특성, 환경적 특성 등 각각의 변인에 대한 관계 또는 영향력을 찾는데 머물러 부모훈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밝힌 연구(문혁준, 1998, 2001b)가 더욱 요구되며, 취업에 따른 상이한 환경과 심리적 특성에 의해 취업모의 훈육태도가 비취업모와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가정할 때 부모-자녀간에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훈육차원에서 이들을 비교한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훈육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부모, 가정, 기타 변인들을 파악하여 비교하고 이들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과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미치는 누적적인 효과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기초로서 작용하는 효율적인 부모훈육태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훈육방법에 관련된 아동, 부모, 가정, 기타 변인은 무엇인가?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훈육방법과 그 하위영역인 방임성, 장황성, 과잉반응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효율적 훈육방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누적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12곳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 623명(이 중 취업모 323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3.05세( $SD=.976$ )이었으며, 남아가 47.0%를 차지하였다. 자녀수는 1명 16.1%, 2명 70.8%, 3명 이상 13.2%이었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6%, 확대가족이 14%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4.68세( $SD=3.48$ )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42.68%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29.8%,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9.1%, 대학원졸 8.5% 순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3.54세( $SD=3.81$ )이었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27.0%,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3.3%, 대학원졸 0.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남편의 평균 연령은 37.55세( $SD=3.97$ )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18.9%, 대학원졸 17.9%,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1.2% 순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 남편의 평균 연령은 36.66세( $SD=4.07$ )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34.9%,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3.8%, 대학원졸 7.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정의 월 가계 수입은 200만원 미만 10.9%, 200-299만원 21.6%, 300-399만원 25.6%, 400만원 이상 41.9%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 가정의 월 가계 수입은 200만원 미만 34.6%, 200-299만원 38.9%, 300-399만원 14.8%, 400만원 이상 10.7%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훈육태도

부모훈육태도에 대한 도구는 Arnold, O'Leary, Wolff와 Acker(1993)에 의해 제작된 Parenting Scale이 사용되었다. 본 도구는 총 21문항이며, 하위영역은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방임성(9문항), 과잉반응성(5문항), 장황성(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성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게 내버려 둔다', 과잉반응성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리를 지른다', 장황성에서는 '아이와 길게 언쟁을 벌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 훈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훈육방법의 Cronbach  $\alpha$ 는 .74이며,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방임성 .70, 과잉반응성 .69, 장황성 .68이었다.

## 2) 아동의 기질

천희영(1993)의 척도에서 활동성(6문항), 생리적 규칙성(3문항), 적응성(7문항) 16문항을 사용하였다.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의 활발함을 의미하며,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를 의미하며, 규칙성은 수면,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을 의미한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의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질의 Cronbach  $\alpha$ 는 .66이며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활동성 .71, 규칙성 .84, 적응성 .88이었다.

## 3)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현은강·조복희(1994)가 개발한 어머니 역할만족도 중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의 Cronbach  $\alpha$ 는 .93이었다.

## 4) 생활만족도

Hayes와 Stinnett(1971)의 척도를 모체로 수정 보완한 척도로 4가지 하위영역(결혼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확실히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의 Cronbach  $\alpha$ 는 .89이었다.

## 5)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rnic과 Greenberg(1990)가 개발한 PHD(Parenting Daily Hassles)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8문항)와 자녀양육 요인(7문항) 등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많이 느낀다' 5

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  $\alpha$ 는 .89이었다.

## 6)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Weiss(1974)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제외한 정보적 지지(4문항), 의존적 지지(3문항), 타인에 대한 지지(4문항),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4문항), 소속감의 지지(4문항) 등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4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원의 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 7) 유아교육기관만족도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어머니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Parents as Consumers(Furqua & Labenson, 1986)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김은숙(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통원(3문항), 시설(5문항), 교육시간 및 내용(4문항), 교사(3문항), 부모교육(5문항) 등 20문항이며,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취원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어머니가 만족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교육기관만족도의 Cronbach  $\alpha$ 는 .92이었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

본 조사는 2002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원장의 동의를 얻어 1000명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65%인 65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623부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Windows용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t검증,

Pe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누적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문제 1에서 밝혀진 유의한 독립변인을 토대로 긍정성<sup>1</sup> 요인 유무(긍정성 유=1; 무=0)를 환산한 후 긍정성 요인의 총 지수로 나타냈다. 취업모의 경우 아동군에서 적응성(상위 1/3의 점수), 부모군에서 어머니 교육 수준(대졸 이상), 아버지 교육 수준(대졸 이상), 가정군에서 자녀수(1명 이하), 가계수입(월 300만원 이상), 기타군에서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하위 1/3의 점수), 생활만족(상위 1/3의 점수), 양육스트레스(하위 1/3의 점수), 사회적 지원(상위 1/3의 점수), 유아교육기관만족(상위 1/3의 점수)이 긍정요인으로 간주되었으며, 비취업모는 아동군에서 출생순위(첫째를 제외한 둘째 이하), 활동성(상위 1/3의 점수), 규칙성(상위 1/3의 점수), 부모군에서 어머니 연령(35세 이상), 가정군에서 자녀수(3명 이상), 기타군에서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하위 1/3의 점수), 생활만족(상위 1/3의 점수), 양육스트레스(하위 1/3의 점수), 사회적 지원(상위 1/3의 점수), 유아교육기관만족(상위 1/3의 점수)이 긍정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훈육태도의 점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훈육집단을 비효율적인 훈육집단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인 323명의 취업모와 300명의 비취업모 중에서 상위 1/3의 점수를 얻은 112명의 취업모와 116명의 비취업모를 효율적인 훈육집단으로 분류한 후 긍정요인의 총 지수(0개부터 6개 이상)에 속하는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아동, 부모, 가정, 기타 변인과 부모훈육방법과의 관계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부모, 가정, 기타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들과 훈육방법간의 상관관계

	1	2	3	4
<b>아동군</b>				
성별				
취업모	.06	.07	.04	.08
비취업모	-.01	-.01	-.03	-.01
연령				
취업모	.07	-.02	-.05	.01
비취업모	.09	.10	.00	.09
출생순위				
취업모	-.01	-.05	-.04	-.04
비취업모	.16**	.06	.14*	.18**
기질				
활동성				
취업모	.03	.09	-.02	.04
비취업모	-.01	.18**	.23***	.18**
규칙성				
취업모	.13*	.05	.07	.13
비취업모	.18*	.04	.03	.13*
적응성				
취업모	.17**	-.03	.14*	.16**
비취업모	.06	-.08	-.06	-.03
<b>부모군</b>				
어머니 연령				
취업모	-.06	.05	.04	.00
비취업모	.02	.14*	.10	.12*
아버지 연령				
취업모	-.07	.04	-.01	-.03
비취업모	-.01	-.06	-.03	-.04
어머니 교육수준				
취업모	.02	.17**	.16**	.16**
비취업모	.01	.05	.03	.04
아버지 교육수준				
취업모	.01	.13*	.11*	.11*
비취업모	-.01	-.06	-.03	-.04
<b>가정군</b>				
자녀수				
취업모	-.04	-.09	-.13*	-.12*
비취업모	.14*	.08	.09	.16**
가족형태				
취업모	-.07	.02	.01	-.03
비취업모	-.03*	-.02	-.07	-.06
가계수입				
취업모	.03	.17**	.21***	.18**
비취업모	-.03	.06	.14*	.08

〈표 1〉 계속

	1	2	3	4
기타군				
배우자의 지지				
취업모	-.05	-.10	-.12*	-.13*
비취업모	.02	-.23***	-.21***	-.18**
생활만족도				
취업모	.04	.19***	.16**	.17**
비취업모	-.03	.26***	.27***	.22***
양육스트레스				
취업모	-.26***	-.24***	-.23***	-.36***
비취업모	-.11	-.30***	-.35***	-.35***
사회적 지원				
취업모	.16**	.20***	.25***	.29***
비취업모	.14*	.12*	.15**	.20***
유아교육기관만족도				
취업모	.09	.05	.08	.11*
비취업모	.06	.09	.16**	.15*

1: 방임성, 2: 과잉성, 3: 장황성, 4: 전체 훈육방법

1: 남아, 2: 여아

1: 핵가족, 2: 확대가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적응성, 부모군에서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가정군에서 자녀수, 가계수입이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의 적응성이 높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적고, 가계수입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출생순위, 활동성, 규칙성, 부모군에서 어머니의 연령, 가정군에서 자녀수와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아동의 기질이 활동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기타군인 배우자의 지지, 생활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유아교육기관만족도와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생활만족도가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사회적 지원이 높고, 유아교육기관 만족도가 높을수록 효율적

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방임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어머니 훈육방법의 하위영역인 방임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기타군에서 양육스트레스만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규칙성과 기타군에서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해 취업모의 방임성의 13%를 그리고 비취업모

〈표 2〉 방임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방임성	
	취업모 $\beta$	비취업모 $\beta$
아동군		
성별	.09	.07
연령	.07	.07
출생순위	.07	.21
기질		
활동성	-.04	-.04
규칙성	.09	.17**
적응성	.04	-.03
부모군		
어머니 연령	-.06	-.13
아버지 연령	-.09	.06
어머니 교육수준	-.03	.02
아버지 교육수준	.02	.01
가정군		
자녀수	-.01	.07
가족형태	-.09	-.03
가계수입	.01	-.08
기타군		
배우자의 지지	-.04	-.00
생활만족도	-.07	-.11
양육스트레스	-.24***	-.09
사회적 지원	.06	.18*
유아교육기관만족도	.05	.03
R <sup>2</sup>	.13	.12
F	2.33**	2.10**

\*p<.05 \*\*p<.01 \*\*\*p<.001

의 방임성의 1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과잉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어머니 훈육방법의 하위영역인 과잉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기타군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출생순위, 활동성, 부모변인에서 어머니 연령, 기타군에서 생활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 이들 변인에 의해 취업모의 과잉성의 16%를 그리고 비취업모의 과잉성의 21%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상황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어머니 훈육방법의 하위영역인 상황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가정군에서 자녀수, 가계수입, 기타군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표 3> 과잉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과잉성	
	취업모 $\beta$	비취업모 $\beta$
<b>아동군</b>		
성별	.06	-.01
연령	-.04	.04
출생순위	-.09	-.16*
기질		
활동성	-.01	.13*
규칙성	-.03	.01
적응성	-.09	-.07
<b>부모군</b>		
어머니 연령	.09	.24**
아버지 연령	.02	-.06
어머니 교육수준	.12	.10
아버지 교육수준	.00	-.10
<b>가정군</b>		
자녀수	-.07	.01
가족형태	.04	-.00
가계수입	.11	-.02
<b>기타군</b>		
배우자의 지지	.05	-.07
생활만족도	.07	.20**
양육스트레스	-.26***	-.20**
사회적 지원	.13*	.01
유아교육기관만족도	-.09	.05
R <sup>2</sup>	.16	.21
F	3.03***	3.81***

\*p<.05 \*\*p<.01 \*\*\*p<.001

<표 4> 상황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상황성	
	취업모 $\beta$	비취업모 $\beta$
<b>아동군</b>		
성별	.05	-.02
연령	-.05	.06
출생순위	.05	.00
기질		
활동성	.10	.22**
규칙성	-.06	.00
적응성	.01	-.05
<b>부모군</b>		
어머니 연령	.11	.05
아버지 연령	-.10	-.01
어머니 교육수준	.08	.13
아버지 교육수준	.02	-.12
<b>가정군</b>		
자녀수	-.18*	.09
가족형태	.06	-.05
가계수입	.16*	.07
<b>기타군</b>		
배우자의 지지	-.00	-.03
생활만족도	.02	.13
양육스트레스	-.22**	-.22**
사회적 지원	.15*	.04
유아교육기관만족도	-.06	.14*
R <sup>2</sup>	.17	.24
F	3.23***	4.50***

\*p<.05 \*\*p<.01 \*\*\*p<.001



아동군에서 활동성, 기타군에서 양육스트레스, 유아 교육기관만족도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해 취업모의 장황성의 17%를 그리고 비취업모의 장황성의 2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체훈육방법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어머니의 전체훈육방법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표 5> 전체훈육방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전체훈육방법	
	취업모 $\beta$	비취업모 $\beta$
<b>아동군</b>		
성별	.11*	.03
연령	-.01	.02
출생순위	.02	.07
기질		
활동성	-.08	.14*
규칙성	.00	.10
적응성	.04	-.07
<b>부모군</b>		
어머니 연령	.05	.05
아버지 연령	-.09	.01
어머니 교육수준	.10	.12
아버지 교육수준	.02	-.10
<b>가정군</b>		
자녀수	-.11	.11
가족형태	.01	-.04
가계수입	.12*	-.02
<b>기타군</b>		
배우자의 지지	-.01	-.04
생활만족도	.03	.08
양육스트레스	-.38***	-.24***
사회적 지원	.18**	.13*
유아교육기관만족도	.01	.10
$R^2$	.22	.24
F	4.71***	4.51***

\* $p < .05$  \*\* $p < .01$  \*\*\* $p < .001$

1: 남아, 2: 여아

1: 핵가족, 2: 확대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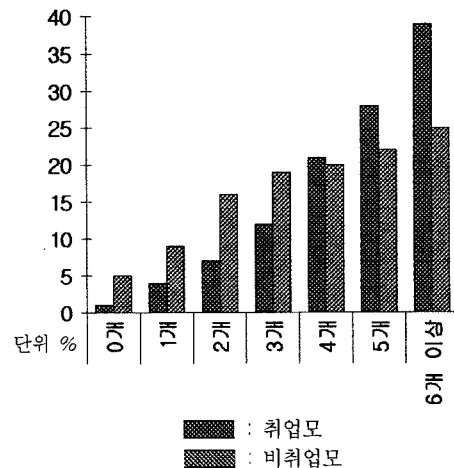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성별, 가정군에서 가계수입, 기타군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활동성, 기타군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해 취업모의 훈육방법의 22%를 그리고 비취업모의 훈육방법의 2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효율적인 훈육방법에 대한 변인들의 누적 효과

어머니의 효율적인 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그림 1>과 같다. <표 6>, <그림 1>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6개 이상의 긍정 변인을 가진 취업모의 34.8%가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보인 반면 긍정 변인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취업모는 0.9%만이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보였다.

비취업모의 경우는 6개 이상의 긍정 변인을 가진 경우 21.6%가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보인 반면 긍정 변인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비취업모는 4.3%만이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보였다.



<그림 1> 누적효과에 있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

〈표 6〉 효율적 훈육방법에 대한 누적효과

독립변인	효율적 훈육방법	
	취업모 대상수(백분율)	비취업모 대상수(백분율)
0개	1( 0.9%)	5( 4.3%)
1개	4( 3.6%)	9( 7.8%)
2개	7( 6.3%)	16(13.8%)
3개	12(10.7%)	19(16.4%)
4개	21(18.8%)	20(17.2%)
5개	28(25.0%)	22(19.0%)
6개 이상	39(34.8%)	25(21.6%)
Chi-Square	23.09***	25.6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낱알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부모, 가정, 기타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는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있어 아동과 어머니 특성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역할과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로써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 없이 어머니의 훈육방법은 향상되기 어려움을 암시한다. 특히 핵가족화와 가족중심적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정안에서의 남편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를 타인의 보호하에 두고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취업모가 겪는 심리적 불안감 또는 죄책감이 남편에 의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배우자의 지지는 효율적인 자녀훈육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업모에게 아동의 높은 적응성, 적은 자녀수,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과 가계수입이 효율적인

훈육에 관계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타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취업모 자녀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아동의 기질적 측면과 직장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에게 적은 자녀수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므로 어머니의 자녀훈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수입이 높은 경우 생계유지가 아닌 자아실현이 어머니의 취업 동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탁아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제적인 여유는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효율적인 훈육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취업모의 경우는 아동의 높은 규칙성과 활동성, 어머니의 높은 연령, 많은 자녀수가 효율적 훈육방법에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낮은 규칙성과 적응성 그리고 높은 활동성을 보일 때 어머니는 자녀가 까다롭다고 인지한 Vaughn 등(1992)의 결과와 아동의 생리적 규칙성과 적응성이 높고 활동성이 낮을 때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윤정·조근호(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높은 활동성이 어머니의 효율적 훈육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는 너무 격렬한 활동성은 갈등의 요소가 되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적당한 활동성은 오히려 어머니와 자녀간에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높으면 자녀양육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보다 적절한 상호작용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훈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많은 자녀수가 비취업모의 효율적 훈육방법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의 존재 가치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또는 인식의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넷째, 훈육방법의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취업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방임성은 양육스트레스, 장황성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과잉반응성은 자녀수, 가계수입,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져 자녀훈육에 있어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나 긍정적인 양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안지영·박성연(2002)의 결과와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고 우울하며, 아동에 대하여 더 부정적·통제적인 부모역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Bigras 등(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자녀훈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면, LaFreniere와 Dumas(1995)는 어머니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아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가져오고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적절한 기술부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최정미·우희정(2002)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를 양육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비취업모의 경우 방임성은 규칙성과 사회적 지원, 장황성은 출생순위, 활동성, 어머니의 연령, 양육스트레스, 생활만족도, 과잉반응성은 활동성, 양육스트레스, 유아교육기관만족도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취업모는 취업모의 하위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기타 변인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어머니 특성 변인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생활만족도와 유아교육기관만족도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상황적·심리적 특성과 자녀훈육방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취업모의 전체훈육방법은 성별, 가계수입,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전체훈육방법은 활동성,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미 앞에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사회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Antonucci(1990)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으며, 광

정인(2000)은 양육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고 이들로부터 정서적 안정감과 자녀 양육 정보를 제공받는 어머니들은 부모 역할을 만족스럽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게 아동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적절한 양육 관련 정보, 양육행동의 실제에 대한 물질적 도움 또는 양육행동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격려가 제시된다면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부모역할수행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어 아동에게 더 적절한 훈육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한편 취업모의 훈육방법에 있어 여아에게 더 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는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애정적이고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경남(2001)의 결과와 일치하며, 낮은 가계수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는 자기통제에 필요한 심리기제를 약화시켜 비효율적 훈육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6개 이상의 긍정 변인을 가진 취업모는 긍정 변인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취업모에 비해 30배 이상의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였으며, 비취업모의 경우는 6개 이상의 긍정 변인을 가진 경우 긍정 변인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비취업모에 비해 5배 이상의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훈육에 있어 아동, 부모, 가정, 기타 변인의 누적효과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시켜 준 결과이며,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에게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취업모의 효율적 자녀훈육을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환경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다양한 변수 즉 성별, 기질, 연령, 교육수준, 가계수입,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등 아동 및 부모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가족환경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녀훈육방법은

달라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만 3-6세 아동의 취업모에 국한하였으나, 취업모 자녀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앞으로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변수로 취업유무만을 살펴보았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동기와 함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등 전문직에 비해 취약한 비전문직 취업모를 전문직 취업모와 비교하여 훈육방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을 살펴보는데 머물렀으나 향후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 한국적 정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정(情), 우울 수준,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가 지각하는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와의 격리불안 정도 등 다양한 정서 상태를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어머니의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측정과정은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은 축소되고 효율적인 훈육방법은 과장되어 실제적인 양육행동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직접 관찰 또는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훈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지원을 늘려주기 위한 가정이나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차별화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곽정인(2000).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망과 부모역할만족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진남(1987). 외동아이와 두 자녀 이상에서 양육태도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개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 127-135.
- 문혁준(2000a). 부와 모가 지각하는 생활환경의 질과 자녀훈육방법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123-137.
- 문혁준(2000b).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와 자녀훈육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15-128.
- 문혁준(2000c).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문혁준(2001a).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문혁준(2001b).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2(1), 35-49.
- 박경자, 권연희(2002). 문제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성연,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타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박주희, 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련 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보건복지부(2001). *보육통계*.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

-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오미경(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장애(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 I : 아버지의 역할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지향. *아동학회지*, 20(1), 135-145.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 옥, 현은강, 최보가, 이귀옥, 이 숙, 조성연(2002). 한국아동의 발달현황과 세대간 부모양육행동 비교. *아동권리연구*, 6(2), 385-414.
- 이윤정, 조궁호(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만족도와와의 관계. *인간이해*, 23, 99-121.
- 이재연,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 임연신, 현은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 천희영(1993). 한국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3), 61-84.
- 최영희(199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불안정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 논문집*, 10, 175-187.
- 최정미, 우희정(2002). 아동에 대한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225-235.
- 현은강, 조복희(1994).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12), 97-108.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ntonucci, T. (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 Antonucci(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California: Academic Press.
-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conduct disordered boys: Who effects whom.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04-609.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igras, M.,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parent and child scales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2), 162-178.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Wethington, E. (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Fuqua, R. W., & Labensohn, D. (1986). Parents as consumers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35, 295-303.
- Hays, H. P., & Stinnett, N. (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Kochanska, G., & Akso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5). Behavioral and contextual manifestations of parenting stress in mother-child dyad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1), 73-91.

- Repetti, R. (1989). *Daily job stress and father-child interact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Vaughn, B. E., Stevenson-Hinde, J.,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63-473.
- Ward, M. J., Vaughn, B. E., & Robb, M. D. (1988).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siblings: Role of the mother in cross-sibling consistency. *Child Development, 59*, 643-651.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pp. 17-2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003년 7월 18일 접수, 2003년 10월 7일 채택)